

당신 앞에는 삶은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어두워지는 시간 방죽에 올라 불 밝힌 사람들의 마을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별들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상의 불빛 하나하나도 별처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8년 연속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87.6점으로 동일 종별 평균 78.8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표준 치료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료의 질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종합점수와 평가등급을 매기지 않는 천식평가(2021년 7월~2022년 6월)도 각종 평가지표가 전체 평균과 종합병원 평균 점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총 430개 의료기관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6개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및 퇴원 시 기능평가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재원환자 및 퇴원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 등 10가지의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를 종합점수로 산출해 등급을 분류했다.

그 결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종합점수에서 85.0점(전체평균 63.2점, 종별평균 77.8점)을 받아 정신건강 입원진료 서비스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22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서 30계단 도약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22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에서 2021년 평가보다 30단계 올라 중소형병원 순위에서 종합순위 2위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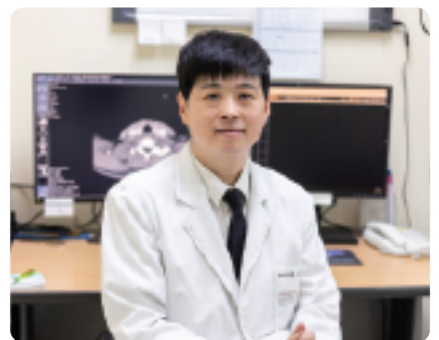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공의 총 1,984명이 참여하여 선정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교육환경 ▲근로여건 ▲급여 ▲복리후생 ▲안전종합 5가지 세부 항목 중 ‘근로여건’과 ‘안전종합’에서 전공의 100~200명 동급 병원 중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권범선 병원장은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동안 수련환경 개선의 노력들이 올해 크게 도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아낌없는 지원으로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김보해 교수, 제일두경부외과 학술상 수상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김보해 교수가 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24회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일두경부외과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보해 교수는 ‘미세유체 시스템을 이용한 구강 점막 모사칩 내 항암제 유발 구내염의 구현’ 주제로 발표한 과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일두경부외과 학술상을 수상했고, 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김 교수는 지원 받은 연구비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 의공학 교실 박봉섭 교수와 함께 7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더맘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보건용 마스크 50만 장 기부

(주)더맘마는 1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인을 위해 써 달라며 보건용 마스크 50만 장을 기부했다.

김민수 대표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면서 항상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동국대학교병원이 (주)더맘마의 기업철학과 맞아 기부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기부의사를 밝혔다. 권범선 병원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첨단 병원 이미지를 이어가기 위해 병원에 기업을 많이 입주시켜 새로운 기술 구현을 위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다. 더맘마와도 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 병원은 아직 팬데믹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며 기부해 주신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영월군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 펼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18일 영월군을 찾아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동일 한방병원장 외 교직원 30여 명과 쌍용C&E 영월공장 직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혈압, 혈당, 침, 물리치료 등 지역민 약 180명에게 맞춤형 진료를 시행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해 진료를 찾기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거주지까지 찾아가 진찰과 처방을 하는 가정방문 의료지원 서비스도 함께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멀리까지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교직원에게 감사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기회가 된다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인턴) 100일 기념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8일 권범선 병원장, 최민석 진료부장, 임윤성 교육수련부장 등이 참석하여 2023학년도 인턴을 위한 1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병원에 입사한지 100일이 된 인턴들이 첫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맡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10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사회가 인정할 만한 구조가 필요하다. 현장에는 책에 없는 내용들이 많다. 앞으로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임윤성 교육수련부장은 “3월부터 100일인 오늘까지 너무나 근무를 잘해 주어 감사드린다. 현재 의료계 이슈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분열보다는 단결과 화합으로 헤쳐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